

배포 일시	2022. 8. 10.(수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 오성익 (044-201-3516)
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044-201-3517)
보도일시	2022년 8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0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원희룡 장관,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당부하며 정부지원 약속 - 8월 10일, 건설기업 CEO 간담회 개최하여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10일(수)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협회(박선호 회장), 한국수출입은행(윤희성 은행장)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강훈 사장) 등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주요 해외건설 기업*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.
 - * (6개사) 삼성물산, 현대건설, GS건설, 두산에너빌리티, 현대엔지니어링, 삼성엔지니어링
 - 이번 간담회는 해외건설수주 실적 확대를 위해 건설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(기관별 지원방안)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할 계획으로,
 - 먼저, 국토교통부는 민간·공기업·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, G2G 협력 강화,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.
 - 해외건설협회는 공공-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,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, 해외건설 통합정보서비스,

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할 계획이다.

-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(Framework Agreement, F/A)과 여러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복합금융,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.
- 마지막으로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,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-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,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부터 수주 까지 이어지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원희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해외건설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,

-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견·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8월 30일~31일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*(GICC)를 개최하는 등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* GICC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

- 주요국 정부, 주요 발주처,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'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(총 9회 개최, 고위급 면담·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약 36억불 수주지원 효과)

붙임**간담회 참석자**

구 분	기 관 명	직 위	성 명
정부	국토교통부	장관	원 희 룡
		주택토지실장	권 혁 진
		대변인	김 상 문
		해외건설정책과장	오 성 익
민간 기업	삼성물산	대표이사	오 세 철
	현대건설	대표이사	윤 영 준
	GS건설	대표이사	임 병 용
	두산에너지빌리티	대표이사	정 연 인
	현대엔지니어링	대표이사	홍 현 성
	삼성엔지니어링	대표이사	최 성 안
유관 기관	해외건설협회	회장	박 선 호
	한국수출입은행	은행장	윤 희 성
	KIND	사장	이 강 훈